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컴퓨터야, 바훗바훗 단아바드(정말정말 고맙다) | 김연희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민다나오의 날씨는 언제나 맑음 | 김진진
길벗 거리모금에서 준공식 까지 | 김진진
- 14 **쫄리읍수어, 캄보디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김재령
- 18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풍요롭다는 것은... | 오성근
- 22 **밍글라바, 미얀마**
천의 얼굴을 가진 JTS 활동가 | 이모아



국내소식

- 26 **함께 나누는 사랑**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회 성금 기부 | 편집부
- 27 **함께하는 사람들**
JTS 서포터즈 2기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권민성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금시열 · 윤지현 · 정희윤



활동터소식

- 37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미얀마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44 **후원인의 소리**
- 45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3. 11. 4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김지은, 양은지, 김옥희, 이미경, 최양희, 최기진, 서민정, 신인환, 심정은, 금시열, 정희윤, 박영일, 노은영, 윤지현, 박용대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어느덧 옷깃을 세우고 총총걸음을 걷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바람은 한결 매서워 졌지만, JTS 소식지에는 이번에도 찬바람에 움츠러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수익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JTS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염소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온갖 것을 당당하게 먹어 치워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애고 한 번으로 분위기를 정리한다고 하네요. 미얀마 사업장에서 다리 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조지대에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천의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활동가의 소회 역시 공개됩니다.

우리 활동가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누구를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인도네시아JTS의 관개수로 공사 소식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캄보디아JTS 김재령 활동가의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해외 사업장의 따끈한 소식에 더해, 각 사업장에 새로 파견 나갈 여섯 분의 열정 넘치는 활동가들과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본부에서 파견을 준비하던 여섯 분이 해외로 나가시고 나니, 그분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마냥 빈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리입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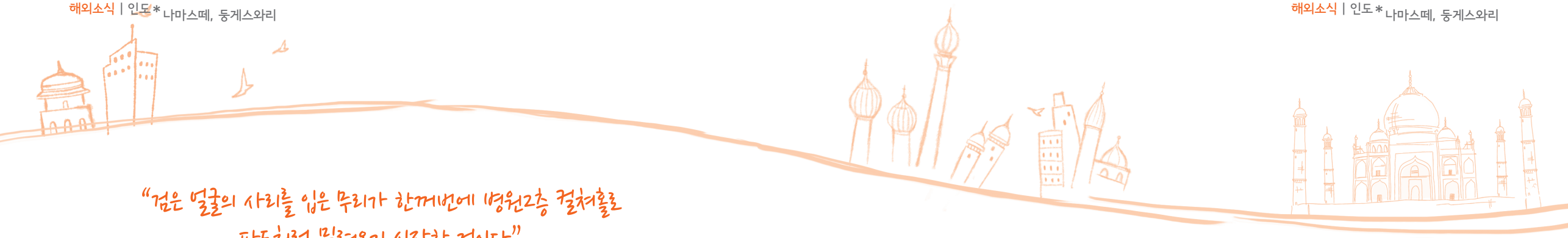


“컴퓨터야, 바훗바훗 단야바드 (정말정말 고맙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보건위생 강연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모자랐을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던 보건위생 강연회의 뒷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김연희 활동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 9월 20일 12시로 예정된 보건위생 강연회! 수자타 아카데미 주변 마을에 사는 500명의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예방접종, 모유수유 등에 대해 강연회를 열기로 예정한 날이다. 보드가야에서 의사선생님도 모셔오고 영상교육 자료도 준비하고 인도인 병원스텝인 삼부가 연극 시나리오도 짜는 등, 예년보다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보려고 연구를 많이 한 행사였다.



“검은 얼굴의 사리를 입은 무리가 한꺼번에 병원2층 걸쳐홀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를 하고 행사가 시작할 시간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12시 정각! 강연장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다. 10분이 지난 후, 커다란 홀에는 아주머니 두 분만 덩그러니 앉아 계신다. “아이고, 망했구나.” 거의 두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행사인데, 이렇게 끝나고 마는 구나 싶었다. 징조부터가 그랬다. 행사 전날에 연극을 같이 준비하던 마을개발 스텝 중 한 분이 쓰러져 입원하는 바람에 애써 준비했던 연극도 취소해야했고, 행사 전날 준비하기로 한 음향설비도 열쇠를 못 찾는 바람에 당일이 되어서야 급하게 세팅을 해야 했다. “이게 다 행사가 잘 안 되려고 하는 징조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자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바깥의 동정을 살피려 나간 순간,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검은 얼굴의 사리를 입은 무리가 한꺼번에 병원2층 걸쳐홀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어느새 홀은 사람들로 빼곡하게 들어찼다. 쿠폰을 배포하고 확인 차 이래저래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마을리더 회의 때 행사 날 꼭 오라고 신신당부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다.

12시 20분, 행사장이 가득 차고 강연하실 의사선생님도 도착하시자 바로 행사를 시작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강연자가 가져오신 DVD 영상을 재생하려는데 설치해놓은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조마조마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컴퓨터에게 말을 건넸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잘 안되던 동영상 플레이어가 말을 듣는다. 진심으로 내 컴퓨터가 너무 고마웠다. 사람이 일이 급해지니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싶었다.

강연 사이사이에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위를 둘러보면,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반짝이는 눈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어머니들은 평생 동게스와리의 시골 동네에 살면서 이런 영상을, 그것도 커다란 스크린으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여하튼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걸 보니 절로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동안 내가 괜히 바짝 긴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 수 배웠다. 다만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선 어떠한 기대도 실망도 선불리 하지말자고 다시 다짐했다.

강연회가 끝나고 500명의 참가자들에게 참가 기념 선물을 나눠줬다. 나눠준 쿠폰을 돌려받고 가루비누 1봉지, 세숫비누 1장, 비스킷 2봉지를 한 세트로 해서 나눠줬다. 먼 곳에서 부터 선물을 나눠주는데, 기다란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데도 모두들 진득이 잘들 기다리셨다. 쿠폰은 5개 마을에 415장을 돌려줬는데, 선물은 고작 350세트만 마련하는 실수를 범해, 병원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인 두르가푸르 마을의 참가자들 전원에게 선물을 주지 못했다. 다음에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다짐하고 집에 그냥 돌려보내는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모든 마을의

모든 가구가 참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참가를 권할 때, 병원에서 일하는 현지인 스텝과 노동자분 이 100퍼센트 모두 참석할 거라고 웃으며 말하던 게 농담인 줄 알았었는데, 이 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곳 동게스와리에서는 손만 잘 씻고, 물만 잘 끓여먹고, 신발만 잘 신고 다녀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병인데, 그런 병에 걸려 아까운 생명이 죽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위생 상식들이 여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물도 귀하고 땀감도 귀한 환경이 그런 습관을 만들었을 거라 짐작은 된다. 이런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하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위생적인 생활을 습관으로 배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이고 단지 하지 않을 뿐이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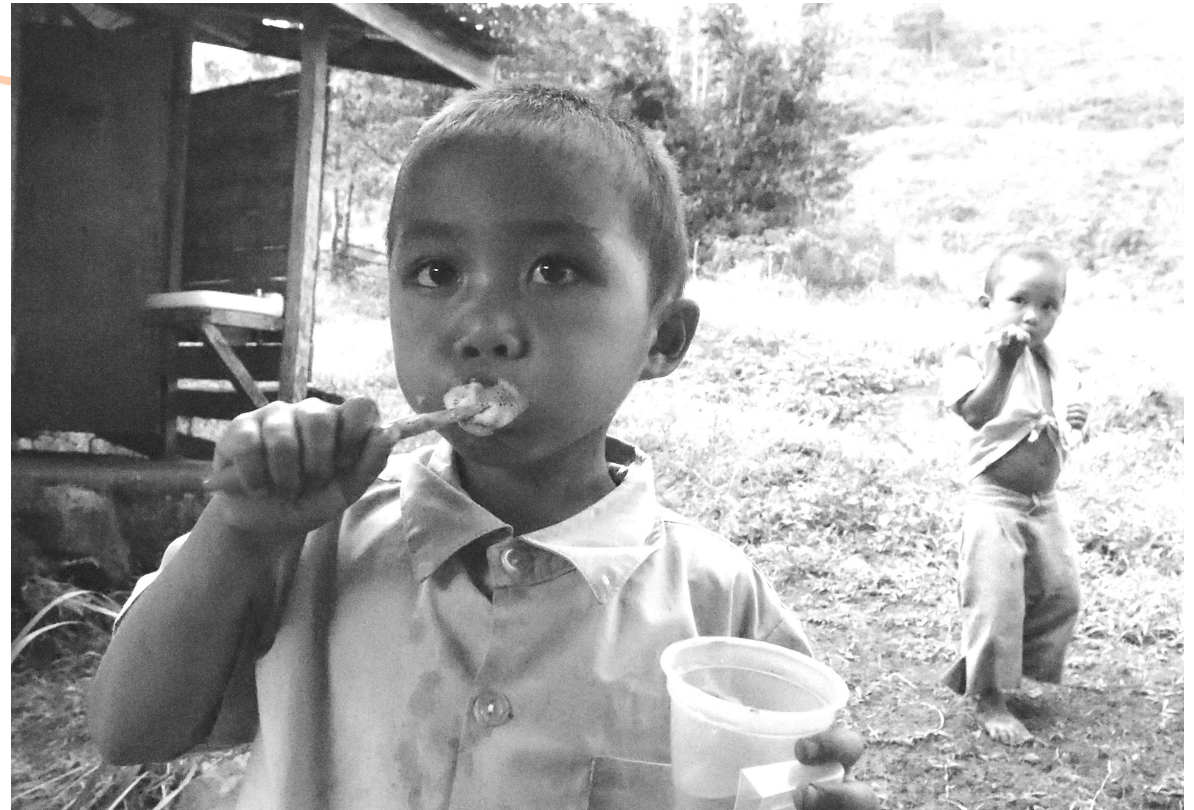
구름처럼 몰려온 아이 엄마들



“그 마음이 닿아서 마을 사람들도 한번이라도 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행동력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조건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꽤 어렵다. 내년에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씩 마을별로 이번과 같은 교육을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못한 연극도 하고, 교육용 영상도 잘 편집하고, 선물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면, 그 마음이 닿아서 마을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수자타 아카데미 9학년 리더들이 뚝뚝 뭉쳐 진행을 도와주었고, 인도인 스텝들도 무거운 음향장비를 날라다가 설치해주었으며, 학교 교사인 아지트가 잘 안 나오는 음향시설을 손봐주고, 한국인 사잇 브라더(주연우 활동가)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주었다. 여러 한국인 활동가들도 아침 일찍부터 강연장을 둘러보며 사람을 배치하고, 짜이와 다과를 준비하고, JTS 센터와 강연장을 왕복하며 강사를 접대했고, 병원 스텝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강연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는 등, 다시금 돌아보니 이 한 번의 행사를 위해 모두가 함께 했었다. 나도 고맙고 너도 고맙다. “바훗바훗 단아바드 샵 로그(모두들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다나오의 날씨는 언제나 맑음



영상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필리핀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덥디 더운 동남아시아에 무슨 가을이냐고요? 한국보다는 구분이 희미하지만, 이곳에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특히 해발 1,000m 이상에 위치한 JTS센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와 파랗게 높은 하늘이 꼭 한국의 가을을 떠올리게 하지요. 지금쯤 고향 땅에도 곱게 단풍이 들고 곧 쌀쌀한 동장군도 찾아오겠지요? 한국의 가을밤 같은 날이면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같은 달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움도 조금은 나아지는 듯합니다. 그럼 그간 필리핀 JTS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JTS 활동 이야기 지난 8월 20~21일 양일간 다물록 시(市) 소재 마카파리 고등학교, 킬라올라오 초등학교, 아폴란 초등학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는 다물록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국립 고등학교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가구당 월 2,6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산간 지대 가까이에 위치하여, 오지 마을 아이들이 보다 많이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참여로 지어진 킬라올라오, 아폴란 초등학교도 무사히 완공되어 새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라원 다리도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사 기간 동안엔 저희도 알라원 학교에서 먹고 자면



JTS가 지원한 칫솔로 양치질하는 민타부 어린이들



김진진 활동가가 민타부 어린이에게 치약을 짜주고 있다

서 아침마다 주민들과 같이 다리로 내려가서 일했습니다. 주민들은 조를 짜서 척척 다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 조는 강가에서 돌을 날라 계단을 쌓고, 한 조는 다리에 깔판으로 깔 굵은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대나무를 묶을 등나무 줄기를 잘라와 끈을 만들었습니다. 다리 기둥 양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높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기존의 케이블을 재사용 하자는데 모두가 동의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기까지 JTS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자재를 배달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주민들의 참여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되고 발판을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고 있자니, 똥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보다는 알라원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물록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묘목장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묘목장이 완공되면 각종 묘목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와 산후조리원은 완공되었고 현재 의료 장비 지원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JTS가 다물록 시 보건 정책 위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보건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JTS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라는 JTS의 정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물록 소재 블루안 초등학교와 마을을 JTS 모델 학교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배명숙 활동가가 추진 중입니다. 격주로 일주일씩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수업도 참관하고 성인 문해 교실에서 리코더 수업도 합니다. 학교에 염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염소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염소가 농가의 요긴한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염소로 시작해서 학교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 장기적으로는 JTS의 지원 없이도 학교와 마을

에서 스스로 아이들 문구류도 사고 급식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JTS 동물 농장 JTS 센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건 역시 염소가 아닐까 합니다. 단 4마리뿐이지만 마치 10마리는 돌아다니는 것 같은 활약상을 보여주는데요, 넓디넓은 센터 곳곳에서 날뛰기, 구르기, 명상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구사하며 종종 사무실과 화장실에 난입하여 종이와 비누를 먹여치우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미친 염소'라고 부르는 대장 수컷은 사람만 보면 앞발을 들어 울리거나 큰 뿔을 들이대며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보여줍니다. 그 덕에 염소 관리를 맡은 김희자 활동가는 요즘 염소들과 사랑에 빠져 하루 종일 염소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 동안 센터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지 않아 송지흥 활동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게 웬일, 요즘 들어 새끼들이 쑥쑥 태어나고 있습니다. 병아리도 자라고 아기 염소도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 녀석들이 잘 자라서 마을마다 소, 염소, 돼지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처음으로 송아지도 태어났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서 그냥 "송아지야" 하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JTS 센터 이야기 JTS센터 시범농장의 주 생산물은 옥수수입니다. 사료용 옥수수이지만 완전히 여물기 전에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서 종종 썰 먹고는 합니다. 하지만 판매용으로 기르는 것이니 부러지거나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야 해서, 옥수수가 먹고 싶을 때는 부러진 것이 없나 부지런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은 고사리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식용 고사리를 '바코', 굵은 야생 고사리를 '시빵'(밭음 주의)이라고 합니다. 산에 가면 나무만큼 큰 고사리, 우리 현지 스텝 미오 아저씨의 표현에 의하면 '빅 고사리'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사리가 잘 자



JTS 센터의 용맹한 염소

라면 소득 작물로 마을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 밭 중간 중간에는 물길을 따라 바나나 나무도 줄지어 심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푸른 옥수수들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군데군데 고구마와 호박, 고사리가 자라고, 한편에는 소와 염소와 개가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시범농장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센터 부지를 정비하며 농장 주변으로 넓게 길도 만든 덕에, 담장 없는 센터 농장 안으로 마을 아이들이 들어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농장 너머 넓은 하늘이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의미도 성과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결국 내가 보낸 시간들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과와 잦은 출장에 때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해나가는 일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몸이 힘든 것쯤은 금세 잊힙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여섯 식구가 다복하게 지내는 필리핀 JTS의 오늘 날씨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필리핀 아폴란 초등학교 준공식

- 길벗 거리모금에서 준공식 까지

지난 5월 4일, 연극·영화·공연·문화예술인들의 수행모임 “길벗”과 한국JTS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명동에서 거리모금을 진행했었습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약 78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아폴란 마을의 초등학교 건립에 지원되었는데, 지난 8월 21일, 약 세 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이야기를 여기에 풀어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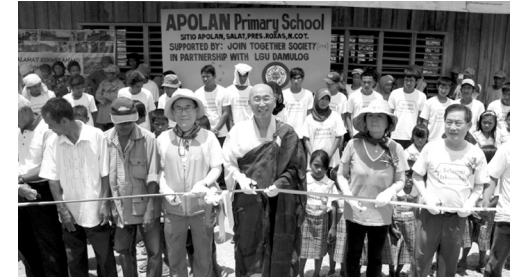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지난 8월 21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아폴란 마을에서 초등학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5월에 기초공사를 시작하니 세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리더는 학교를 짓는 동안의 마음을 묻는 질문에 “매우 좋았어 (Very good! Excellent)”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큰일을 한 것이 처음이었지만, 아이들을 빨리 공부시키고 싶은 열망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마을에 학교건축을 지원해주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준 것에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 해 전인 2012년 10월 21일, 이원주 필리핀 JTS 대표와 배명숙, 이재곤 활동가가 조사차 아폴란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의 방문은 물론 외부인의 마을 방문도 처음이라고 신기해했습니다. 당시 마을 아이들은 마을에서 7km 정도 떨어진 플랑이 강 건너의 살랏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힘들게 통학하다가도, 비가 와서 강물이 불면 아예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이재곤, 김진진 활동가가 마을을 방문하여 학교 건축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아폴란은 무슬림 마을이라 마킨다나오어를 쓰는 탓에 JTS의 현지 코디네이터인 제시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영어에 능한 주민이 있어 JTS가 준비해간 서류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역해주었습니다. 학교 건축 설명회 중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이 아이들이 바로 학교에 다닐 주인공이라며 활동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5월 1일에는 김진진 활동가와 현지인 인턴들이 학교 기초공사와 자재 배달을 위해 다시 아폴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많은 자재를 배달해야 했지만, 마을까지 배달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라노온 마을에서 짐을 내린 후 보트를 이용해 아폴란 마을까지 나르기로 했습니다.



라노온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아폴란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실어 나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JTS 활동가들은 먼저 마을로 가서 기초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재를 나르러 라노온 마을에 가 있는 상태라 적막하기까지 한 아폴란 마을의 학교 부지에서 기초 공사를 하며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핸드폰을 가진 주민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약한 신호 탓인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재를 실은 보트를 강어귀에 대어놓고 비가 그치기를 밤새 기다리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JTS도 비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런 만큼 다시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낮이 되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재개했고, 마을 청소년들도 카라바오(물소)로 자재를 나르면서 학교 공사를 도왔습니다.

JTS 활동가들이 학교 건축을 점검하러 마을에 방문했을 때, 마을의 리더인 노르딘의 부인이 토실토실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코리안(Korean)”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었는데, 정말로 이름이 “코리안”이라고 했습니다. JTS가 아폴란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노르딘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이후 아기가 태어나자 JTS와 아폴란의 만남을 기념하여 이름을 “코리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는 “코리안”을 만날 수 있는 아폴란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지은 예쁜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동북 산악 지방에 라따나끼리 주(州)가 있다. 라따나끼리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의 면적인데 주민은 15만여 명 밖에 살지 않는, 한국의 강원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이다.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를 보이는데, 이곳 라따나끼리는 산악 구릉이어서 그런지 후덥지근하지 않고 날씨가 선선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김재령 활동가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웅찬 마을에 가는 김재령 활동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산(山)

라따나끼리는 동쪽으로 베트남, 북쪽으로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산악지형이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소수 부족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왔다. 평야나 낮은 구릉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산이다. 서울의 달동네가 그렇고, 내 고향 강원도 태백 철암이 그렇고, 인도의 불가촉천민 마을인 동게스와리가 그렇고, 라따나끼리의 소수 부족 마을 역시 그렇다.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수가 아닌 소수자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곳 라따나끼리에서도 정부를 등에 업은 돈 있는 다수의 캄보디아 부자들이, 소수 부족이 소유한 땅을 헐값에 구입하여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소수 부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소수 부족들은 주로 화전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물정을 모르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헐값에 땅을 파는 것이다. 지금은 작기해도 자기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들은 고무나무 농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상황이 이러하데, 글자와 숫자도 모르는 소수 부족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라따나끼리에 사는 소수 부족 중에는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문맹이 많다. 문맹이라고 해서 삶이 불행한 건 아니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권리를 빼앗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소수 부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족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소수 부족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은 신분상승이 아닌 미래 그 자체이다.

산골에 큰 강이 있어서 학교 가기 어려운 소수부족 아이들

라따나끼리에 3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웡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웡찬은 군 소재지에서 강을 건너야 하는 약간 고립된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소수 부족이 사는데, 마을이 작아서인지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대체로 덩치가 작다. 아이들이 강 건너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해도,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범람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강을 건너서 학교에 가기 어려우니 마을 안에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고 관청이나 여러 단체에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야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학교를 지어 줄 돈이 캄보디아 관청에는 없었다. 대신 관청에서는 주민들에게 JTS를 소개해줬다. 마을 주민들은 JTS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했고, 작년 8월에는 학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학교를 지으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정성과 노력

작은 마을에 작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학교를 하나 지으려는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 건너 마을이어서 시멘트, 모래, 자갈, 벽돌 등 모든 건축 자재를 주민들이 일일이 조그만 배로 실어 날라야했다. 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마을은 트럭이 건축자재를 학교 건축 현장까지 날라준다. 그런데 웡찬 마을 주민들은 학교 짓는 일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를 일일이 실어 날라야하니, 그 수고와 노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퇴약별이 내리 쬐고, 3명만 타도 휘청거리는 조그만 배에 조그만 사람들이 건축 자재를 나르면서 흘린 땀방울은 학교 짓는 데 쓰인 모래알 수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큰 마을은 주민들이 많이 살아서 학교 짓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하면 된다. 그런데 웡찬 마을은 30

여 가구 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 학교 지을 사람도 적다. 웡찬 마을 주민들은 이삼일에 한 번은 학교 짓는 일에 참여해야 하고, 건축 자재 나르는 일은 수시로 해야 했다. 가난한 마을 주민들이 농사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주 학교를 짓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웡찬의 정성과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말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짓기가 올해 3월에 중단되었다. 기술자가 소위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주민들 중에 학교 지을 기술자가 없어서 먼 마을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왔는데, 학교가 완공되기도 전에 기술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곳 라따나끼리는 학교 지을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젊은이들은 도시나 외국으로 돈을 벌기위해 나가고, 주민들은 대부분 고무농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손때가 묻은 작지만 예쁜 학교가 드디어 완공된다.

새 기술자를 구하는 동안 학교는 짓다 만 흉한 모습으로 몇 개월간 그대로 있었다.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캄보디아의 8월은 부지깽이도 덩병인다는 농번기이다. 우리는 어렵게 구한 기술자와 함께 마을에 가서 주민들에게 학교를 완공하자고 했다. 주민들은 학교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는 일에 다시 참여하였다. 그리고 올 9월, 주민들의 손때가 잔뜩 묻은 작지만 예쁜 학교가 드디어 완공되었다. 학교를 짓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었다면 아직도 학교는 흉한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싫어서 그들의 손으로 기어이 학교 하나를 만들고야 말았다. 어느 사회나 소수자로 살기란 쉽지 않다. 캄보디아 내에서 소수 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웡찬 마을 아이들이 글자와 숫자를 터득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며 올곧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이 학교는 초석이자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되고 학교 짓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한 부이장님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지었어?”

부이장님은 조그만 조각배에 앉아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우리 마을은 강 건너 편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교육청에 얘기를 해도 강 건너 마을이라고 어려워했는데.....”.

부이장님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에, “마침 JTS를 소개받아서 기뻐합니다. 학교를 다 지어서 기쁘고 신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나는 부이장님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란 마지막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부이장님이 아주 정중한 말투로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나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초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지 잘 모른다. 내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부이장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관개수로 작업장



풍요롭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관개수로 공사 현장에서 마을 꼬맹이들과 함께 돌을 나르던 활동가가 다시 발견한 JTS 활동가들의 최종 목표. 그게 무엇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어느덧 벌써 소식지 원고를 쓸 때가 왔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소식지 원고는 참 빨리도 차례가 돌아온다. 또한 이것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늘 그렇듯 이곳에서의 시간은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바쁜 상황들의 연속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속전속결의 문화가 아니기에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하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을 써야 하기에 “빙어리 냉가슴 앓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지만, 이제는 어느 덧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니까지게 된 거 같다.

이제 막 관개수로 추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돌 쌓기 100미터, 미장 600미터의 얼마 되지 않는 공사이지만,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에서의 4년간의 JTS 활동도 이제 마무리 된다.

지난 주 일요일부터 관개수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5일 전부터 공사 시작을 위한 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래 계획량의 반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만이 배달되어서 내 맘을 초조하게 하였다. 혹여 자재가 공사 중에 모자라서, 사람들이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지는 않을까,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와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활력이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오만 걱정을 하며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떠들썩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나와서 고사리 손으로 뭔가를 나르기도 하고 모래 더미 위에서 휴장난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무리의 아이들은 높다랗게 쌓인 시멘트 더미위에 점령하여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의 일을 찾아서 하기로 다짐하고 돌이 필요한 지점에 다른 곳에서 남는 돌들을 손수레에 싣고 나르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하니 아이들이 신기한 듯 모두 나를 쫓아서 그 일을 했다. 처음

수로 공사 중



엔 만만해 보였지만, 화강암으로 부피에 비해 밀도가 매우 높은 큰 돌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10번 정도 나르니 점점 힘이 떨어졌다.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꼬맹이는 아직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는데 어른이고 덩치가 3배는 큰 나는 창피하지만, 점점 피가 생겨서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때 구세주와 같이 점심시간이 되었다.

마을에서 품앗이로 만든 바나나 잎으로 싣은 점심 도시락을 나도 하나 받아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처마 밑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도시락에는 아주 조그마한 쇠고기 두 조각과 붉은 고추 같은 것과 머슴밥보다 더 많은 양의 밥이 다였지만, 시장이 반찬이라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그것도 시멘트 가루가 허열게 남아 있는 손으로 말이다. 밥에 비해 반찬이 매우 적었기에 찬을 다 먹고 거의 맨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밥을 드시던 어른에게서 수줍게 고기 한 조각을 주셨다. 여기도 고기값이 비싸기에 그리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거늘 내가 맨밥을 먹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런지 반이나 나에게 주신 거다. 황송해서 고맙다고 하고 밥을 먹는데, 어른은 고추 같은 것만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었다.

참 고마웠다. 별거 아닌 거 인데, 이런 게 정이구나란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기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공동 작업에 잘 참여하지 않으면, 원망스러웠지만, 역으로 참여한 마을 사람들에게 대해 고마운 마음이 솔직히 없었다. '당신들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 열심히들

하셔야지' 이런 차가움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공동 작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지, 나와 같은, 내 곁에서 자기가 가진 두 조각 중 절반을 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진짜 생각 했었나 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현지어 그것도 내가 전혀 못 알아들을 사투리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껄껄 났을 때는 나를 조롱하고 우스개로 삼는 거 같아 기분이 나빴다. 가끔은 그냥 나에게 아는 체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보니 그것은 나에게 대한 호감의 표시였고,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나는 지레 짐작으로 적대적으로 보고, 혹은 나와 같지 않는 타자(他者)로만 보았던 거 같다.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하나보다 하고 좋아했지만, 사람들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밥을 먹고 뒷정리를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오후의 작업은 오전보다 더 힘이 들었다. 날이 째째해지고 머리에 열이 꽃히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오후 작업에도 역시 꼬맹이들과 돌을 날랐다. 제일 무식하고 힘든 작업! 어느새 꼬맹이들도 힘에 버거웠는지 하나둘 사라졌지만, 다른 어른 한 분이 또 우직하게 일을 돌을 같이 날랐다. 거진 한 트럭은 됴직한 양의 돌들을 사람의 힘으로 옮긴 것이다.

그날 일은 오후 2시경부터 폭우로 인해서 원래 계획량의 80%선까지 밖에 하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참 좋았다. 성과를 내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을의 일을 놀이 삼아 재미 삼아서 한다. 몸을 쓰고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깨작이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나름 진지하다. 자기에 맞는 수준의 일을 찾아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마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크다면 분명 마을의 일꾼이 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말이다.

우리 활동가들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누추한 집에 살며, 거친 음식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는다고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까? 마을이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있고, 사람이 있는 이곳이 그날따라 더 풍요롭게 느껴졌다.



천의 얼굴을 가진 JTS 활동가

때로는 깍쟁이 새댁, 때로는 잔소리쟁이 언니.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천의 얼굴을 가진 JTS 활동가가 들려주는 해외 사업장에서 사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이모아 활동가

행사에 참여한 미얀마 JTS 활동가들



미얀마 사업장에 파견 된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다. 반년이라면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내 안의 수 없이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깍쟁이 새댁, 내일은 잔소리쟁이 언니, 모레는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때로는 냉철한 NGO 활동가가 돼야 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면, 미얀마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내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동네 새벽시장에서 장을 볼 때의 내 모습은 깍쟁이 새댁이다. 어떤 야채가 더 싱싱하고 저렴한지, 어느 달걀이 더 크고 신선한지, 어느 하나 대중 고르지 않는다.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다 작게 흠집이라도 난 크고 실한 야채를 발견했을 땐, 애교 섞인 목소리로 100짖(한화로 85원 정도), 200짖이라도 흥정에 들어

가고, 기필코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야 만다.

고기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을 생각해 기름이 많은 비계부분을 제외한 부드러운 살코기만 구입하다 보니, 이젠 정육상인이 멀리서 걸어오는 내 모습만 보고도 알아서 원하는 부위의 좋은 살코기를 준비해놓을 정도로 시장 내에서 난 깍쟁이 한국여자로 소문이 났다.

하루 1달러라는 JTS의 생활규정에 맞춰 4식구의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 가끔은 나도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이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두 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가는 내 마음은 한없이 가볍다.

김장을 준비중인 활동가들



장바구니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2층 양옥집에 입주해 있는 미얀마 JTS 사무실이다. 우리들에게 그저 주방이 딸린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없는 판잣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현지 직원에게 우리 사무실은 평생 처음 접해보는 미지의 공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늘 긴장상태에 있게 된다.

냉장고를 열어놓고 닫지 않는다든지,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매번 잊어버려 주방기구를 다 태워먹는다든지, 닭 뼈를 싱크대 배수구에 쑤셔 넣어 두거나 남은 국물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부어버리는 등, 한국에선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을 매일같이 하는 통에 날 늘 잔소리쟁이 언니가 돼버린다.

심지어 현관문 자물쇠를 연 다음 열쇠를 자물쇠에 그대로 꽂아 놓고 외출할 정도이니, 나로서는 어느 하나 맘을 놓을 수가 없어 하나에서 열 까지 다 잔소리를 하고 만다. 쓰레기를 버리는 위치와 방법까지 백

번을 넘게 알려줘도 늘 잊어버리는 현지 스태프들 덕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다.

밥 먹을 때도 예외는 아니다. 미얀마에는 매번 먹을 양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문화가 있어, 매일같이 밥상머리 교육을 가장한 잔소리를 해야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이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한껏 잔소리를 하다가도 풀이 죽어있는 현지 스태프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져, 간혹 가다 맛있는 한국음식 만들어 대접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행여나 밤에 덥거나 춥진 않을까 잠자리도 꼼꼼하게 봐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 사업장을 방문해야할 날이 되면, 어느새 언니도, 엄마도, 새댁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행여나 사업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이른 새벽부터 꼼꼼하고 냉철하게 현장방문을 준비하는 냉철한

살코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정육점



NGO 활동가의 모습으로 변해있다.

이 냉철한 NGO 활동가는 사업장에 도착하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반응들을 경청하고 꼼꼼히 체크한다. 사무실 안팎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파견되기 전 아무것도 모르던 모습을 찾고 싶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주민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신기하게도 그동안 쌓여있었던 열불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따뜻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정, 개구쟁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다시 기운을 얻는다. 그렇게 다시 각쟁이 새댁과 잔소리쟁이 언니가 될 힘을 얻는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엄마가 빨아주신 옷을 입고, 차려주신 밥을 먹고, 쉬는 날엔 늦게 까지 잠을 잤었다. 하지만 미얀마 사업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 순간 늘 잔소리하면서도 먼저 챙기고, 먼저 다가가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하게 됐다. 가끔은 화

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내 모습이 싫지 않다. 오히려 수많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데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좌)평화리더십아카데미 백성희 동문회장과 (우)JTS 김기진 대표님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회, 북녘동포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을 위한 성금 기부

지난 9월 30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의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및 여성리더십아카데미 동문회를 겸한 법륜스님의 “힐링 동문회” 강연이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약 160여 명의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들과 여성리더십아카데미 동문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고, 강연 시작 전에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회 여러분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모금한 성금 400만원을 JTS에 기부해주시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 여러분께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굶주림과 부실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JTS 서포터즈 2기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10월 19일, 인사동에서 총 15분의 JTS 서포터즈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JTS에서 내부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활동가를 임명하는 자리였기에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서포터즈 교육을 준비했던 활동가와 교육을 받고 활동가가 된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JTS 서포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한국 JTS - 권민성 활동가

“JTS 서포터즈”는 JTS의 인증을 받은 정식 활동가를 말합니다. JTS 서포터즈가 되려면 우선 JTS에서 진행되는 JTS 세계시민교육을 수료한 다음, 3회의 이론 교육과 3회의 거리모금 실습을 추가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JTS의 정식 활동가로 임명되며, JTS에서 진행되는 해외 단기봉사활동 참가 우선권을 갖게 되고, JTS의 이름으로 거리모금을 진행하거나, 차기 서포터즈 교육 준비팀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월 19일, 인사동에서 총 15분이 JTS 서포터즈 2기 활동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두 달 반 동안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셨던 서포터즈 2기 활동가 여러분과, 주말을 반납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던 한국JTS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욱이 활동가 (서포터즈 2기 / 직장인)

“마지막에 캠페인 겸 거리모금을 준비하던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다 같이 팻말도 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머리를 모아 고민했던 것도 좋았어요. 저희 2조는 모두 똑같은 옷을 입어서 더 잘 단합되고 마음이 모아져서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리모금이라든지 교육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게 많고 참 알차았어요. ‘후속으로 더 하는 교육은 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오해주 활동가 (서포터즈 2기 / 중학생)

“저는 첫 모임에서는 어색했어요. 속으로 괜히 신청했나 싶었는데, 조가 구성된 이후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분위기도 많이 편해져서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부터 엄마와 정기적으로 거리모금을 하고 있어서 서포터즈 거리모금이 새로운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금을 거절당해도 마음에서 화도 안 일어나고 재미있게 하게 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수업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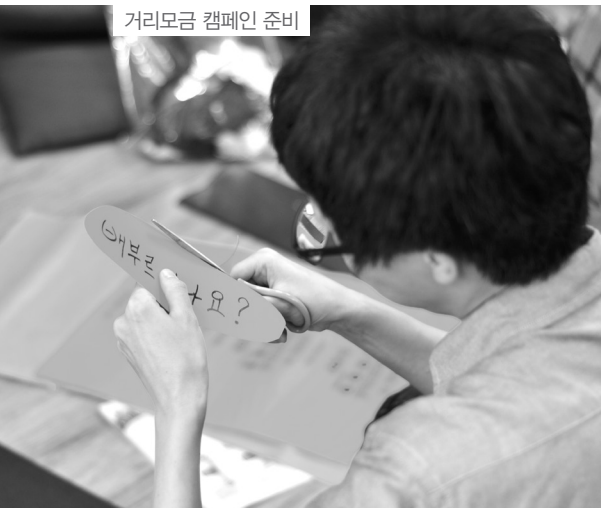
고현영 활동가 (서포터즈 담당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JTS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어요. 거리모금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제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다만,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 주말에만 참여했기에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교육 준비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욕심을 줄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 날 있었던 임명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사동 거리 한복판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임명식을 진행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새롭고 재밌었죠. 또한, JTS의 가치를 확산시켜나갈 활동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청소년 서포터즈 분들입니다. 모든 활동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예뻐요. 저는 20대가 돼서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생각을 처음 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서포터즈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JTS 서포터즈 3기 교육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잘 준비하여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TS에서는 2013년 JTS 세계시민교육이 완전히 끝나는 내년 1월 중순 쯤, JTS 서포터즈 3기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JTS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나, 현재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 JTS 해외사업장으로 파견 나가는 활동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명의 활동가 중 다섯 명은 인도JTS 사업장으로, 한 명은 스리랑카JTS로 파견 나가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결심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 JTS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업장 간의 교류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평적인 사무실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해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나요?

학생시절 가족과 거리모금을 참여했었고, 대학생 때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필리핀과 인도로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기억과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었고,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법륜스님의 영상을 보면서 해외파견에

권도영 활동가

대한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감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듯이 한 두 해 정도 어려운 나라로 나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회사생활을 잠깐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아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자신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주변 여건과 기회가 허락하여 더 잘 쓰이고 더 행복한 사람이 돼 보려고 합니다.

Q. 해외봉사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많은데, JTS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JTS를 후원하고 있었고, 다른 단체에서 해외봉사를 경험한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공부, 세상을 이해하는 공부, 나를 바라보는 일에서 모두 JTS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JTS에서 파견활동하셨던 분들의 좋은 평판을 들었고 그래서 더 JT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해외에서 생활하셔야 하는데, 걱정은 되지 않세요?

어머니와 가족들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되고요.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좋은 일 하러 간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더 오래 있다 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감사하고, 그 힘으로 걱정을 떨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까지는 초조했습니다. 영어와 힌디어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을 하니가 편해졌습니다.

Q. 인도 사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전거를 타거나 수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인도 사업장의 자전거 수리 파트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일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자전거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일하든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작은 일이라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해외 파견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막연한 생각으로 무리하면서 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저도 주변 여건도 허락하지 않았고, 해외파견에 대한 마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말만 잘하는 사람, 국제관계 전문가, 취직해서 기부를 하고 자 하는 사람 등 저마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순되는 삶의 부분을 보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잘 먹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잠시 또 욕심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좋은 평판만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도 하고요. 말하는 것처럼 실천하며 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봉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올 수 있는 길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아 활동가

Q. 어떤 계기로 JTS에서의 해외 봉사활동을 결심하셨나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입니다. 그 곳에서 JTS의 활동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JTS는 밑바닥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봉사를 수행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에서 배낭여행을 갔던 경험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긴장됩니다.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대됩니다. 모하네요, 한 달 전에는 현장 영상을 볼 때마다 미국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현장 영상을 접하면 ‘내가 저 곳에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두근두근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위가 가장 걱정됩니다. 음식이나 업무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기후가 너무 달라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Q. 인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식수 개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이 환경 공학인데요, 개도국의 식수환경 개선을 항상 꿈꿔왔습니다. 인도에서도 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다녀온 이후에도 봉사를 통해서든, 연구를 통해서든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싶습니다.

또, 작게는 아이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자타 아카데미의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Q. 해외 파견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망설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JTS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는 않아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로 생겼을 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깊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망설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봉사를 정말로 할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방향이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민 활동가

Q. 어떤 계기로 JTS 해외파견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정토회 백일출가를 했어요. 그곳에서 JTS를 알게 됐고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뜻대로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JTS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뜻을 좇아 살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가기 전, 한국 JTS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JTS의 조끼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어요. 재미있지만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에요. 막연히 예쁜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디자인을 참고하고 이미 활동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참작하여 구상하고 있어요.

Q. 해외 파견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는 11월 중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발을 디뎌야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파견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단단히 먹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 준비만 하고 있어요. 인도는 활동하기 힘들고 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일이 걱정이 되긴 해요.

인도에서 일 년 반 정도 봉사를 할 생각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잘 이겨내고 싶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다보면 막상 그곳에서의 일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자타 아카데미가 현재 예체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의 전공을 살려서 예체능 중심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미술을 공부하며 놀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등 예체능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Q. 아직 해외 파견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세요.

그냥 가면 되요. 그냥 가시면 좋을 거예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버리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세요. 진지하게 파견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상황이 된다면, 일단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박종화 활동가

Q. 그동안 JTS에서 상근 활동가로 근무하셨는데, 힘든 점이 있었나요?

서류정리 업무는 안 해보던 일이라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의기소침해지곤 했는데, 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보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작업하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국제개발은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안전과 보건사업을 정리했는데, 중간에 다른 스케줄이 겹치면서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됐어요.

Q. 어떻게 인도에 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하셨나요?

정토회 깨달음의 장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도 살면 되는구나, 그냥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허무함을 놓아버리게 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데, JTS의 홍보영상을 봤어요. 원래는 인도에 놀

러 갈 계획이었는데, 그냥 놀러 가느니 봉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보름만 봉사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JTS 해외활동가 파견은 그렇게는 안 된대요. 한 달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 물어봤더니, 단기 파견은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장기로 가기로 하고 지금은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봉사를 결심하고 11개월을 기다렸는데, 직장을 쉽게 관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름까지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Q. 홍보영상의 어떤 장면을 보고 해외파견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해요.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영상에 나오는 수단 아이들이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잘 울지도 않는대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울었대요. JTS 영상에는 북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북한 아이들은 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치 정지된 영상이나 사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북한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연습을 해서 북한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봉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나중에는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다가 통일일이 되면 환경운동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Q. 인도에 가면 힘들겠다거나, 걱정되는 점은 없나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도로도 힘들어하는데 인도에 가면 못 버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한 말을 꼭 지키고야 말거든요. 말 해 놓고서 행동을 안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냈어요. “나 인도에 갈 거다. 봉사 갈 거다” 하면서 소문을 내 놓고 안 지키면 부끄러워지니까 안 갈 수 없게 됐죠. 이런 식으로 결심했던 그때의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Q. 그렇다면 인도에 가게 돼서 좋은 점은요?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웃음) 걱정을 하려고 해도 현지 상황을 실제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요. 여름에는 엄

청 답다고도 하고 건기에는 잘 때 춥다니까, 두 가지 다 걱정이 돼요. 의사소통이라든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도 되고요.

Q. 인도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지바카 병원 일이 저에겐 익숙하니까 맡겨지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서서 맡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을 개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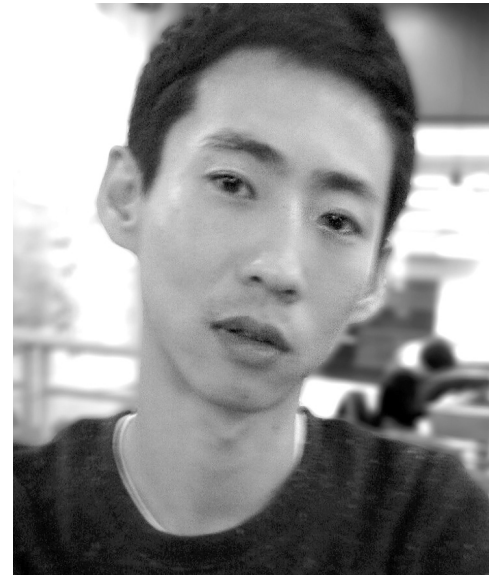
Q. JTS에서의 파견자 교육은 어땠나요?

현지 사업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는 건 재미있었어요. 회계 같은 걸 공부 해두는 것도 좋다고 듣긴 했는데, 막

상 그런 건 되게 즐기고 힘들더라고요. 현지와 관련된 정보를 보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러다보니 인도와 관련된 것은 배우고 싶은데, 직접 연관이 없는 건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론 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것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Q.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파견을 가게 되는데 어떤가요?

같이 가는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어서 유리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니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인도에 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모두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해외에서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준태 활동가

Q. 어떤 계기로 JTS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2007년에 인도와 네팔로 두 달간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참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듬해 정토회 깨달음의 장에 갔고, 마지막 날에 본 수자타 아카데미 관련 영상에서 본 인도의 현실, 실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몹시 부끄러웠고, 마음 속 한곳에 언젠가는 인도에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막연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 경영학 전공을 살려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2년 여 일하면서 일에는 만족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와 모순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타인을 돕고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시키고자, 인도로 해외봉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길로 백일 출가를 위해 퇴사했고, 출가 생활을 마치고 JTS에서 상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해외봉사는 11월 말 즈음에 갈 예정입니다.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을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나요?

해외파견 활동가들은 파견을 나가기 전 본부에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해외파견 가기 전 계획하는 일이나, 파견 가서 활동하는 데 대한 목표가 있나요?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도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위해 이것저것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여자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해외 봉사를 이해해주는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파견 가서는 그곳에 필요한 일에 성실히 임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과 사회생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마을 개발 분야 중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Q.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인가요?

기대가 많이 돼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인도, 동계스와리의 실제 모습과 생활이 무척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Q. 아직 해외파견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망설여지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거야'라든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가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깊게 고민해보며 선택을 내리는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원석환 활동가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8개월 가까이 상근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최종결과와 판단을 할 수도 없기에, 업무의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 일을 할 때, 나의 개성과 능력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일과 수행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관들 속에서 도출된 JTS 운영의 보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Q. 국내에 해외봉사자를 파견하는 단체가 많은데 어떤 계기로 JTS를 통해서 나갈 결심을 하셨나요?

경쟁관계를 벗어나 나와 타자가 모두 경쾌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해외봉사를 지원했지만, 단순히 해외봉사만을 원했다면 JTS에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JTS가 불교단체인 정토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단체의 사상이 제 삶의 방향과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JTS를 통해 해외봉사를 자원했습니다.

Q. 해외에서 생활하여야 하는데 걱정은 되지 않으세요?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보다 해외 각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생활하며 일한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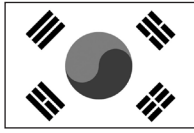
Q. 해외 파견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일말의 망설임이 있다면 해외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는데, 무엇이 위험 없이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머리로만 열심히 계산하는 건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직 건강하다면,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지금 행복하기

1. 능허 김응 법사님, 저서 인지세 기부

계룡대 군중병과장 능허 김응 법사님께서 그동안 장병들에게 보냈던 좋은 글들을 모아 <지금 행복하기>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시고, 그 인지세를 캄보디아 JTS의 사업에 기부해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다 : 미얀마

2. 강원대 차장섭 교수님, 저서 인지세 미얀마 사업에 기부

지난 해, 인도 불교 성지순례를 다룬 저서의 인지세를 기부해주셨던 강원대 차장섭 교수님께서, 올해에는 미얀마를 주제로 한 책을 내시고 그 초판의 인지세를 JTS의 미얀마 사업에 기부해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인지세를 지속적으로 기부해주시는 차장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JTS 서포터즈 2기 거리모금

3. JTS 서포터즈 2기 수료식

지난 10월 19일, JTS 서포터즈 2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 15명이 이론교육과 거리모금 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JTS 서포터즈 활동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JTS 서포터즈 여러분의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JTS 세계시민교육

4. JTS 세계시민교육

JTS 세계시민교육이 2013년 하반기에는 서울 인사동과 선린인터넷고, 경기도 광명, 분당, 일산은 물론, 대구, 부산 및 전라도 광주 등 전국 8곳에 개설되었습니다. JTS 세계시민교육은 4회에 걸쳐 교육과 거리모금을 병행함으로써,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체득할 수 있는 JTS의 프로그램입니다. 4회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JTS 세계시민교육 수료증이 주어지며, JTS 인증 활동가인 JTS 서포터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ndia 인도



태풍에 흠박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날아간 가구

1. 동게스와리에 태풍이 왔습니다.

인도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두르기푸자 기간에 동게스와리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 마을에 수해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JTS에서는 라훌라가르와 만코시힐 마을의 호우피해를 입은 14가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지붕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벃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아기 환자에게 드레싱 하는 모습

2. 지바카병원은 무사합니다.

지바카 병원은 매일매일 꾸준히 드레싱이 필요한 마을 환자를 진료하고, 호메오패틱(동종요법)으로 만성병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주 결핵환자들 6명에게 약과 영양식을 주고 있으며, 주 1회마다 15개 마을 신생아들에게 각종 예방접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심각한 저체중아를 체크하고 영양식을 주는 것도 물론 잊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0일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총 5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람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엔 가루비누와 세숫비누를 선물로 드렸는데, 마을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즐겁게 청소에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

3.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쉬람단

동게스와리의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은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공공장소일수록 청소를 나서서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각종 수인성 질병과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질병이 많은 이곳에서는 그만큼 깨끗한 마을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마을 아이들과 주민이 주도가 되는 청소 쉬람단을 계획했습니다. 첫 시작은 스리람푸르 마을이었는데, 마을 주민 60명과 아이들이 집계와 쌀 포대 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풀을 뽑았습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마을 리더와 인사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Philippine 필리핀



아폴란 초등학교 준공증서를 마을 리더에게 전달하는 모습

1. 마카파리 고등학교, 킬라올라오 초등학교, 아폴란 초등학교 준공식

8월 20일과 21일에는 JTS의 지원으로 다물록 지역에 마카파리 고등학교, 킬라올라오 초등학교, 아폴란 초등학교 총 3개 학교가 완공되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는 JTS 법륜 이사장님, 한국JTS 박지나, 김기진 대표님,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님, 코이카 김미연 부소장님 외 한국 및 마닐라에서 여러 손님들이 방문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킬라올라오 초등학교 준공식

2. 킬라올라오 초등학교 건축 후원 - 익명, 명심상 후원자님

다물록 지역의 킬라올라오 초등학교는 제주도의 익명, 명심상 후원자님의 JTS 교육사업 후원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민다나오의 어린이들을 위한 두 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JTS가 지원한 칫솔로 양치질하는 만타부 초등학교 학생

3. 바갈랑잇 초등학교, 만타부 초등학교에 문구류 지원

바갈랑잇 초등학교 학생 105명 학생에게 기초 문구류를 지원하였고, 만타부 초등학교 학생 207명에게는 기초 문구류와 칫솔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업중인 오버루킹 초등학교 학생들

4. 딸라각 지역 JTS 지원 학교 모니터링

딸라각 소재 JTS 지원 학교 까나안(Canaan), 산마테오(San mateo), 오버루킹(Overlooking), 장애인 학교 SPED에 방문하여 학교 운영 상황 및 마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 다물록 지역 목목장 공사 시작

JTS와 코이카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다물록 프로젝트 중, 목목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ambodia 캄보디아



웁찬 마을 주민들과 학교에서

1. 웁찬 마을 학교 완공 및 마을잔치

2013년 9월, 드디어 웁찬 마을의 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공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월 17일에는 학교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과 기술자, 관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준공식 겸 마을잔치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중인 따농 마을 학교

2. 따농 마을 학교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10월까지 따농 마을 학교건축은 50%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연일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원활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 지붕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문구류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따농 마을 아이들

3. 따농 마을 문구류 지원

지난 10월 14일 캄보디아 JTS는 따농 마을 초등학교 105명을 대상으로 문구류를 지원 했습니다. 아직 학교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지만, 주민들과 선생님들은 첫 수업을 일찍 시작하기 바라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마을회관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2013년 신규 학교 교복후원 - 김재성, 황영금 후원자님

캄보디아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김재성, 황영금님께서 2013년에 완공될 5개 학교의 모든 학생 600여 명에게 교복을 후원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부부이신데요, 지난해에도 학생들에게 교복을 후원해주시고 캄보디아 JTS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5. 타뱅크라움 학교 공사재개

웁찬의 이웃마을인 타뱅크라움의 학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타뱅크라움 학교의 경우 근처에 이미 학교가 있지만 오래된 목조건물인데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위험한 상황입니다. 타뱅크라움 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Myanmar 미얀마



빠에지 마을 만족도 조사

1. 짜웅공 홍수 피해 긴급복구 사업 완료

짜웅공 긴급복구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다리 3량, 초등학교 1개, 12개 학교 기자재 지원 및 통학로 조성에 관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재건축 관련 마을리더 회의

2. 사퓨수 학교 재건축

마을 주민회의를 통한 학교 재건축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짜웅공 시 소속 기술자의 협력 하에 건물 설계 및 견적논의, 짜웅공 교육청을 통해 학교 재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회의중인 미야잉 타운십 관계자들

3. 건조지대(Dry Zone) 도로정비사업

2013년 1월부터 답사한 미얀마 중부 내륙 건조지대 중 미야잉(Myaing) 타운십에서 건조지대 첫 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더빈 마을 운동회 진행위원회 회의

4. 탄더빈 마을 운동회

탄더빈 마을을 포함한 짜웅공 타운십 전통 경기인 나트배 경주와 한국 전통 놀이, 그 밖의 한국과 미얀마 운동회 종목을 결합하여 마을 운동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신규 사업장 조사

신규 사업장 개척을 위해 미얀마 중북부 지역인 산 주(Shan 州), 커야 주(Ka Yar 州), 친 주(Chin 州)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Laos 라오스



마을학교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

1. JTS 라오스 활동 개시

JTS는 올해 10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인 라오스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인 '콕 농부아(Khok Nongboua)'에 초등학교 건축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국제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농촌지역의 빈곤퇴치 및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용품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2. 콕 농부아 마을 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

지붕과 벽이 내려앉아있던 콕 농부아 마을 학교는 어느 새 허물어졌고, 지금은 마을회관을 임시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칠판만 가져다놓은 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은 옆 마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사전 답사 중에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과서를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공책과 연필 등 꼭 필요한 학용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하루빨리 튼튼한 학교가 지어져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정준, 김신아, 최동호, 주연우, 박성재, 김연희, 변영경, 이유진, 이은숙, 권도영*, 김은아*, 김정민*, 박종화*, 장준태*
필리핀	이원주, 이규초, 송지홍, 송현자, 배명숙, 이재곤, 김진진, 김희자
캄보디아	정철상, 김재령, 박병수, 문태훈
인도네시아	임희성, 오성근
스리랑카	이대원, 원석환*
라오스	배혜정

해외JTS 후원금 (2013. 8. 01. ~ 2013. 9. 30.)

미국 JTS 8월

Hyong C Kang	\$ 250
Kay Park	\$ 100
Celesstie M Kuder	\$ 50
Diana Jeong	\$ 20
Dianne Park	\$ 120
Han Joanne Dohnoff	\$ 20
Joe H Ha	\$ 60
Kyung J. Kim	\$ 5
Linda Davis	\$ 50
Michael W. Yang	\$ 31
Microsoft Matching	\$ 30
Gifts Program	\$ 660
Seattle Junglo	\$ 65
Susan Kwak	\$ 100
Warren Hewit	\$ 50
Yong Suk Suh	\$ 100
김미경	\$ 100
김세희	\$ 50
김수현	\$ 30
김수현	\$ 30
김순미	\$ 100
김원태	\$ 30
김은경	\$ 300
박경배	\$ 80
박수현	\$ 50
박승운	\$ 30
손정훈	\$ 200
윤시모	\$ 28
이귀엽	\$ 100
이노석	\$ 50
이동영	\$ 400
임선희	\$ 150
임선희	\$ 30
차효순	\$ 30
최경숙	\$ 50
최만성	\$ 20
최명숙	\$ 2,000.00
최민선	\$ 50
하정옥	\$ 100

미국 JTS 9월

다이애나 정	\$ 20
마이클 양	\$ 31
무주상	\$ 611.00
수진\	\$ 100
이동근	\$ 100
Bonjoo, Hudson and Haven Shim	\$ 500
Joanna Gill	\$ 100
K. Freeman Lee	\$ 800
Kyung J Kim	\$ 5
Patty O Kim	\$ 100
Seungyong Park	\$ 100
김미경	\$ 100
김미혜	\$ 233.33
김병용	\$ 100
김선희	\$ 20
김세희	\$ 50
김수현	\$ 100
김수현	\$ 30
김순민	\$ 100
김윤진	\$ 100
박경배	\$ 120
박수현	\$ 50
서기희	\$ 30
서용석	\$ 100
송호성	\$ 50
안미영	\$ 100
워싱턴정토회	\$ 344
윤영수	\$ 500
이귀엽	\$ 100
이노석	\$ 30
이동영	\$ 200
이동영	\$ 200
이복희	\$ 30
임선희	\$ 30
정현경	\$ 108
차효순	\$ 30
최경숙	\$ 60
최만성	\$ 20
한혜진	\$ 100



나눔저금통 현황 (2013. 8. 01. ~ 2013. 9. 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제

거제법당 28,770 김은숙 95,880 원마트 70,640
조현근 6,360 최영화 39,600

구미

고진영 74,970 박미정 18,410 송예주 11,500
최성선 30,000 홀플러스 33,940

대구

김동철 19,130 김호권 89,810 대구정토회 17,470
도원행 18,710 무명 5,750 무명 39,700
무명 41,350 박아희 16,320 송진원 39,060
신미경 25,360 이마트마일리지 34,946
이순희 36,790 이유환 12,730 임주미 21,370
장애나 27,250 정용수 44,700

대전

무명4개 397,710 이순조 22,510

마산

강우상 32,900 김삼선 24,820 김영숙 29,030
무명 47,150 박삼숙 34,370 송진혁, 송진원 45,860
인제정 1,700 오은미 36,810 이은지 15,380
조재명 52,420 최경 31,500 코오롱목욕탕 189,600
코오롱우리마트 17,010 허영선 28,370

서울

강정원 6,470 광영준 5,600 구성림 32,730
권민다 15,950 김미숙 35,650 김지민 67,000
무명 62,000 무명 34,320 무명 29,810 무명 27,400
무명 48,880 무명 20,560 무명 14,510 무명 21,910
무명 13,760 무명 107,960 무명 12,210
무명 36,470 무명 24,720 무명 24,050
문장일 35,700 서현숙 28,350 신상아 9,310
안수원 23,920 안영신 28,410 이순할머니 54,870
지혜동이 24,750 진광자 31,100 진창원 39,690
최윤정 34,240 최윤희 23,000

수원

무명4개 95,970 수앤이 39,800

울산

글라스안경원 11,290 김선옥 29,160 무명 14,020
쓰바안경원 14,150 옥동골프연습장 7,550
옥동대왕약국 19,050 옥동찰보리빵 12,290
옥동한살림 18,370 울산축협(삼호지구) 26,700
자연드림 17,610 썬뱅크(가) 7,340
화장품프라자(아음동) 112,950

일산

일산저금통 639,550

진주

김미경 39,940 최충수 36,270

창원

김동휘 42,710 무명 39,640 산순이 45,460
이정숙 27,960 전천웅 23,520 조선화 29,040

통영

한성옥 26,110

포항

무명 16,160 임남숙 31,700 황윤필 30,500

해운대

김영애 44,600 김용현 24,280 박정아 59,990
서지희 41,650 이수영 34,010 이창욱 22,580

기타

5565홍진영 52,940 국민은행김현주 27,490
김미숙 22,200 김수경 76,840 김승진 26,000
김태균 45,500 나경자 53,930 박기범 29,720
백주희 20,080 설하리 57,210 손민정 25,260
송경희 39,510 신지원 21,390 안혜란 18,410
유경숙 111,690 이윤숙 23,500 이민희 23,420
이화영 35,700 임성훈 8,000 저금통-인천 42,040
저금통JTS 25,650 전옥수 22,310 정수영 30,500
정수영 22,890 정영숙 36,240 정진영 34,440
정혜숙 53,520 조혜숙 30,500
최우민, 장다운, 최우수 17,900 최재연 83,620
한승명살래 134,370 한승명살래 155,210
황윤원 14,000

거리모금 현황

2013년 08월 01일부터 2013년 09월 30일까지
강화 62,000 거제 256,300 평명 310,240
구미 182,800 김철호 37,260 노원 590,900
대구 2,663,260 마산 2,141,950 목포 38,600
서포터즈모금 448,180 서현서포터즈모금 576,420
울산 52,600 울산청년팀 73,800 유애경 84,070
인사동모금 1,702,210 인천 435,360
입재식시모금 676,813 창원 375,990
통영 1,991,490 통일약병모금 449,250
평택 107,800 포항 135,120 해운대 157,85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